

# 민통련 시절, 사람 냄새가 그림다



전 가톨릭노동사목 대표 윤순녀

1944년생.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회장, 현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평화의 샘 소장

나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민통련과 인연이 닿은 1980년대라고 생각한다.  
가난하게 생활하며 민주화투쟁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이 다음 저세상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면  
민통련 시절을 이야기하며 얼싸안고 춤추게 되겠지...

## 장충동 노동사목과 민통련과의 만남

1980년대 암울했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장충동에는 '노동사목과 민통련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웃사촌처럼 잘 지냈다. 1984년 가을인지...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난다.

하루는 이창복 선생님이 오셔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얼마 후 분도빌딩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노동사목의 이름으로 이창복 선생님이 사무실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나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이야기

를 하러 우리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냥 가신 선생님의 말 못하는 심정을 일른 헤아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름이 필요한 것이구나.' 싶어서 가슴 두근거리며 나도 모르게 얼버무려 질문에 대충 답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후에 이 선생님을 만나서 왜 의논도 없이 남의 이름을 도용했느냐고 따졌더니, 그런거는 모르면서 하는 것이라고 웃으며 넘기셨다.

그 후로 한동안은 내가 주인 행세하느라고 분도회관을 뺏길나게 드나들게 되었고, 그 곳에 계신 박근배 신부님, 김종필 신부님, 에드몬드 수사님과 수시로 수도회와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관계대책모임을 하면서 그분들도 민주화 운동에 투사들이 되어 갔다.

그 다음 해(국민회의 시절), 그러니까 1985년초부터 '국민회의'와 '민민협'의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명을 쓰면서 활동하던 시절이라 보안 유지와 입지조건 등을 따져 모임 장소로 우리 사무실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 때부터 몇 달간 우리 사무실에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회의를 거듭해 나가는 동안, 나는 유일한 여성으로 식사 문제와 보안 유지에 신경쓰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안 풀리는 대화나 사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한 역할을 하면서 잘 되면 왜 그리 신이 났던지...

한번은 어느 한 분이(지금도 누구라면 아하! 그분)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분을 붙들고 밤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이며 설득하느라고 비지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 전국조직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일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이지 내가 생각해도 무던히도 미쳐있었다.

아무튼 그 때 누가 나에게 '윤주모'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고, 장기표 선생님은 항상 나를 '윤언니 치마바람'이라고 불렀다. 매일 저녁 모이다시피 한 그 기간 동안 소위 운동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들의 성격이나 인품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 국민의 선량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분들을 뉴스에서 보면 옛날 생각이 떠올라 혼자서 웃을 때가 많다.

가톨릭노동사목은 1984년 3월에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로 출발하여 2년 후에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로 바뀌었다. 장충동에 간판을 내걸고, 그 당시 오갈 데 없는 노동자들의 안식처이자 노동운동의 사랑방이었던 전국의 노동사목을 조직화하여 가톨릭에서는 처음으로 교회의 비공인단체로 인정되었다. 노동현장의 복음화와 사회민주화를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운동) 활동을 통하여 양성된 투사들이 노동현장에서 해고

된 후 1970년대 말부터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노동자목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언니, 누나, 동지가 되어 컴퓨터와 교육 장소를 제공하며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7년 가을부터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 때는 여러 곳에서 민주노조 설립으로 눈코뜰 사이없이 바빴는데, 그 동안의 땀과 눈물이 눈앞에 조직으로 드러날 때에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1985년 민통련이 출범한 후, 우리 장충동 사무실은 점심 시간이 되면 민통련 식당이 되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 계훈제 선생님 등 운동의 어르신들과 이창복, 임채정, 장기표, 김종철, 이부영, 박용수 선생님들이 오셔서 사무실 텃밭에서 가꾼 상추, 썩갓 등으로 얼마나 맛있게 잘 잡수시는지... 그분들의 가난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며 점심 한끼라도 같이 모여서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큼 운동하는데 서로 힘이 될거라 믿으며 정말 없는 반찬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식사 준비를 했다. 그 때 함께 일했던 사무실 간사 이태희, 박노희(콘트롤데이타 해고노동자들)는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일했다. 모두가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느꼈다. 민통련에 가면 사람은 세상으로 북적거렸고 살맛이 있었다. 데모하다 얻어맞고 터지고 와서도 다음 날 또 거리로 나서는 삶의 모습은 실로 운동이 축제였던 것 같다. 지금도 생각한다. 문익환 목사님이 데모대에 앞장서시고 경찰들과 대치할 때, 얼마나 힘이 장사이신지 온몸으로 밀어제끼시면 젊은 경찰들도 뒤로 밀려났다. 계훈제 선생님은 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셨고, 혹시라도 다치실까 늘 다른 사람들이 서서 선생님을 보호했다. 박용수 선생님은 왼쪽 팔에 보도사진기자 완장 하나 차고 중군기자처럼 거리를 누비면서 사진찍다가 감옥과 유치장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 그래도 나오시면 또 지치지 않고 필필 날아다니셨다.

86년 5·3인천사태 때는 김종철 선생님 등 대부분의 일꾼들이 잡혀가거나 수배당해 민통련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하여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누가 잡혀가면 석방대책위 만들어 사무실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농성했고, 또 누가 분신했다고 하면 새벽에 한강성심병원으로 달려가서 위문하고 시체 앞에서 농성하면서 시체를 지켰다. 정말 많이 위문다녔다. 박영진, 박종만 동지 분신 모습이 지금도 안 잊혀진다. 경찰들이 늘 장충동 분도빌딩 앞에서 불심검문을 하였고,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려면 수없이 실갱이를 해야 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일했다. 문익환 목사님의 부친 문재린 목사님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대병원에서 민통련 송년의 밤 행사도 가졌다. 경찰들이 명동성당 송년모임 장소를 봉쇄하여 할 수 없이 병원 빈소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아버님도 좋아하

실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민통련 동지들에게 늘 큰바위 같으셨던 문 목사님이셨다. 이 글을 쓰면서 새삼 문 목사님이 보고 싶다.

## 장충동 민주화운동 사진현상소

장충동 노동사목 사무실 뒤쪽으로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다. 앞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는 곳인데 박용수 선생님이 밤이면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최루탄 맞으면서 찍어온 사진을 현상하셨다. 아무도 모르게 민주화운동 사진현상소를 만들어드렸다. 먼 훗날 남는 것은 사진과 기록자료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노동사목 사무실이 민통련 운동에 '안전가옥' 구실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한여름 낮에도 깜깜한 현상소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문을 닫고 일하셨다.

그리하여 '민중의 길'이라는 한 권의 사진책을 만들어내셨고, 그 사진첩 안에는 정말 많은 사진의 기록과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지금도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 장기표 선생님과 우리 대모님

민통련 시절 잊을 수 없는 일화 중 하나다. 장기표 선생님이 수배되어 숨을 곳을 찾다가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다.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갑자기 혼자 사시는 우리 어머니의 영세 대모님 생각이 났다. 그래서 무조건 장 선생님을 모시고 갔다. 어느 신부님의 형님이신데 고시공부하러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대모님 생각이 났다며 겨울에 눈이 오면 마당 눈도 쓸어드리면서 도와드리기로 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신부님 형님과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난감하다는 연락이 왔다. 할 수 없이 분도회에 김종필 신부를 모시고 가서 인사드리고 가정미사를 함께 하면서 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장 선생님은 그 사이에 기도문을 외우며 연극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옆집에 사는 성당 자매님이 자꾸 놀러와서 물어 보고 말을 걸고 하여, 결국은 불안해서 한 달 만에 그 집을 나왔다. 얼마 후 대모님 집에 가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 형님을 어디서 많이 본 사람같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로 대충 돌려 위기를 모면하고 나와서 '살았구나' 하고 큰 숨을 내쉬었다.

그 후에 장 선생님은 다른 집에 가서 있다 잡혀서 숨겨주었던 분도 같이 감옥에 갔다는 뒷 소식을 들었다.

## 백기완 선생님과 모 수녀원

1980년대 중반이라고 기억된다. 백기완 선생님이 수배 중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디 조용한 모실 곳을 찾다가 경북 어느 수녀원을 한 신부님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차를 빌려서 수녀님 한 분을 앞에 태우고 백 선생님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2주일 후에 들통이 나서 잡혀가셨고 수녀원은 난리가 났다.

수녀님들은 백 선생님을 위하여 보신당도 해 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전화도청과 사모님 미행으로 발각이 되었다. 경찰들이 며칠간 잠복근무하여 잡아가기까지 그 조용한 시골 수녀원이 당한 뒷이야기를 들으니 소개해 주신 신부님과 원장수녀님 등이 공동체로부터 받은 많은 곤욕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한마디 뒷말이 없으셨다.

나 역시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민주화과정에서 민통련과의 인연이기에, 지금 이 정도라도 민주화가 되어 곤욕을 치룬 수녀님과 신부님들께 조금이나마 빛을 갚은 느낌이다. 나머지 남은 빛은 하느님이 그분들에게 갚아 주시겠지….

## 혜화동 끈베투알 프란치스코수도원과 문익환 목사님 단식

1987년 12월 17일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나서 선거 결과를 보니 또다시 참패였다. 민통련은 이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초상집이었다. 12월 24일이라고 기억된다. 임채정, 이창복 선생님이 만나지는 연락이 와서 혜화동으로 나갔다.

문익환 목사님이 단식을 하시면서 대선 후유증에 대한 정리와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가톨릭에서 찾아달라는 부탁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근처에 있는 끈베투알프란치스코 수도원 생각이 났다. 그 곳은 수도원 신학생 수련소로서 젊은 수도자들의 숙소였다. 이 수도원은 개인적으로도 나의 남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원이라서 평소에 알고 지냈는데 하여튼 무조건 찾아갔다. 마침 안면이 있는 김안토니오 신부님이 계셔서 지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수도원에 탄생하러 오셨다며 너무나 기쁘게 허락을 하셨다.  
하느님 감사!!

그 길로 문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그 때 김부겸씨(현 국회의원)가 동행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 목사님께서서는 그 수도원에서 약 2주일 가량 머물면서 철저히 단식하시고 수사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대선에 대한 민통련의 입장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 나중에 그곳 수사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갔더니 오히려 그 큰 어른을 자기 수도원에 모시는 영광에 감사해야 한다며 인사를 받았다. 그 때 신문에 문 목사님 단식 뉴스와 함께 수도원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단시일 내에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수도원으로 부상되었고, 지금도 그 수사님들 만나면 예수님 성탄축일날 이야기를 하면서 민통련 소식과 여러 사람들 안부를 묻는 등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겼다.

## 민통련 시절을 되돌아보며

나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민통련과 인연이 닿은 1980년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문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린다. 특히, 가난하게 생활하며 민주화투쟁을 하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이 다음 저 세상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면 민통련 시절을 이야기하며 얼싸안고 춤추게 되겠지... 이분들의 눈물과 투쟁이 헛되지 않아 우리 나라의 민주화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한 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겠노라고 오늘도 다짐한다.